

ISA 경품... 승용차에 2000만원 여행권까지 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달 출시 앞두고 은행권 고객잡기 안간힘

국민·하나 등 5대 은행 경품만 17억원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출시(3월 14일)를 앞두고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승용차에 이어 2000만원가량의 호화로운 여행 상품권까지 경품으로 등장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데 이어 다음 ISA의 출시가 시작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달 14일부터 ‘KB ISA 신

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두 13명을 추천하는데 경품 규모만 약 4600만원에 달한다. 1등 1명은 2000만원 상당의 전세계 여행상품권을 받는다. 2등 2명에게는 각 500만원 상당의 유럽 여행 상품권, 3등 10명에게는 각 100만원 상당의 동남아 여행상품권을 제공한다.

사건 이벤트도 개최한다.

ISA 상담을 사전에 예약하거나 신규 가입을 예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추천 대상은 10만명으로, 모두 5억원 규모다.

따라서 KB국민은행이 ISA 경품으로 내건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5억4600만원 정도다.

KEB하나은행은 ISA 경품으로 10억원 상당의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머니는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OK캐쉬백(SK플래닛)과 SSG머니(신세계) 등 각종 포인트로 바꿀 수 있다.

1등 한 명에게 주는 1000만원짜리 여행상품권을 포함해 약 2000만원 상당의 경품도 준비했다. 전체 규모는 10억2000만원 수준이다.

NH농협은행은 20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를 포함해 모두 6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

공한다. 우리은행은 하와이 여행상품권을 포함해 약 4000만원 어치의 경품을 내걸었다.

‘리딩뱅크’ 신한은행의 경품 규모가 가장 작다. 신한은행은 1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포함해 모두 2100만원 정도의 경품을 내걸었다.

경품액이 이례적으로 치솟자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조만간 각각 협의체를 꾸려 과당 경쟁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2000만원은 고객 1인에게 한 번에 줄 수 있는 경품 한도액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증시 상승세 이끌 국내 이슈 없어

美 슈퍼화요일·중국양회 관심

3월분기 외국인 선물매매도 주목

2월 중순부터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했던 중국상해증시가 지난주 25일 6%는 넘는 폭락세를 보였다. 연초 이후 폭락세를 보인 후 2638P를 저점으로 견고한 반등세를 보이던 중국상해종합지수는 춘절이전 인민은행이 공급했던 단기 자금의 회수와 3월 IPO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주식공급 우려 속에 최근 반등폭이 컸던 중소형주와 정보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크게 증가하며 하락했다.

특히 26일 상하이에서 개막하는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기대했던 위안화 논의가 없을 것이라는 중국재정부장의 발언이 향후 위안화 약세에 우리가 확대되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다.

중국증시가 폭락한 25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0.32% 상승한 1919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0.36%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증시의 급락에도 미국경기지표조조와 국제유가의 반등에 따라 다우지수와 유럽주요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심리 개선에 힘을 실어 주었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지난 한주간 +1.2%와 +1.7%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선진국 증시의 안정과 2월중순 이후 국내증시의 반등에 1900선이하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했던 국내기관이 지난주 1900선이상에서는 차익실현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2주연속 거래소시장과 선물시장에서 순매수하며 매물을 소화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뚜렷한 주도 업종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원달러 환율 약세가 지속되고 유가하락에 따른 실적기대감이 이어지며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진 한국 전력과 일부 화학업종이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이번주도 국내에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 이슈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 미국대통령선거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슈퍼화요일의 결과에 따라 수혜업종의 단기테마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3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중국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증시도 뚜렷한 모멘텀 없이 양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는 제한적인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증시도 1분기 저점을 확인하고 1850~1950 사이의 박스권을 돌파 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옵션만기 이후 외국인의 선물포지션이 코스피지수의 방향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월 옵션만기일 이후 외국인은 거래소시장에서 +1.79%를 순매수하며 그동안 지속되었던 강한 순매도 행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3월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코스피200 선물을 2만 8360계약을 순매수하며 현물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선물순매수를 주시므로 환산한다면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은 최근 대북약제 및 사드문제로 인한 대중국과의 관계악화 우려에도 국내증시의 상승에 배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3월 선물만기까지 외국인의 선물매매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국내증시의 추가 상승과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잘 나가는 공기청정기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소비자가 공기청정기를 둘러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황사·미세먼지 기승 예상

공기청정기 매출 15% ↑

선글라스 26%·스카프 43% 증가

올해도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상품군의 매출도 덩달아 뛰고 있다.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열흘간(2월 15일~24일) 가전 및 생활용품 매출을 분석해 본 결과 공기청정기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5% 신장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 26%, 스카프 43%를 비롯, 중금속 해독작용 효능이 있는 한차도 20% 가까이 판매가 늘었다.

또 에어컨 예약판매에 들어간 삼성, LG 가전 매장에서는 집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초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필터 등 공기청정기 기능이 한층 강화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설 영향 유통업체 1월 매출 급증

대형마트 11%·백화점 9%·편의점 31% ↑

올해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설명절 영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발표한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1월 매출 증가율은 대형마트 11.0%, 백화점 9.0%, 편의점 31.5%, 기업형슈퍼마켓(SSM) 2.6%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은 2월 19일이어서 매출이 주로 2월에 반영됐으나, 올해는 2월 8일이어서 1월 말과 2월 초 매출이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 산업부는 밝혔다. 상품군별로는 설명절 관련 품목인 식품(대형마트 14.7%, 백화점 33.1%, 편의점 21.9%, 기

업형슈퍼마켓 2.7%) 매출이 크게 상승하며 각 업종의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의류(대형마트 6.0%, 백화점 2.2%)와 잡화(대형마트 8.2%, 백화점 4.9%)도 1월 중순 한파 영향으로 겨울철 상품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이 늘어났다.

유통업체별로는 대형마트 매출이 과일, 정육, 통조림, 선물세트 등 식품품목의 전반적 판매 증가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백화점은 설명절 영향에 따른 식품매출 증가와 한파로 인한 겨울철 의류·잡화 매출의 증가로 전체 매출이 상승했다.

편의점은 도시락과 커피라면 등 식품 판매와 점포 증가 등으로 매출이 올랐고 SSM은 과일, 정육, 선물세트 등 설명절 관련 상품 판매 증가로 매출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수입차 개소세 품수 인하로 수백억 이익 의혹

6000만원대 모델 대당 26만원

업계 “환율고려 부당이익 없어”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품수 인하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6천만원대 수입차 모델에서 대당 26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자동차 전문가들이 최근 수입차 A사의 최고급 B모델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 추정

한 결과다. 과거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될 때마다 수입차 업체들은 세금이 인하된 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아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감면 혜택을 일부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해당 수입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만 확보하면 자신이 산 수입차에 붙은 개소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관련 부당이익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2012년 차량과 현재의 개소세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2012년 3월 당시 유로 환율은 1516원으로 현재 환율과 200원 가량 차이가 나고 지난해는 300원이나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술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술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술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술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술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